

항공방위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국내 항공방위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 편집실 |

우리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공동주최로 지난 5월 27일 한국 항공방위산업의 효율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항공방위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국가 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갈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내 항공방위산업 관련 산·학·연·군·관의 교류를 증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항공방위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효율적인 발전방향 등 첨단 항공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공군의 이진학 소장(항공사업단장)은 '21세기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력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였고, 세종대 이기상 교수, 한양대 조진수 교수, 세종대 이경태 교수 등이 참여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비전, 국내 방위산업의 현황과 기술수준을 조망해 봄으로써 군 항공기 절충교역을 활용한 기술이전을 토대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육성방안이 논의되었다.

국내 항공방위산업은 KT-1 기본훈련기 및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을 통하여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군 사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방위산업 여건상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기술확보가 시급한 당면과제이며, F-X사업을 통한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서의 발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국내 항공산업 현안 및 발전 방향

국내 항공산업은 지난 '99년 국가적 차원의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항공 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설립됨으로써 그간 대우, 삼성, 현대, 대한항공 등 다자간 경쟁체제로 초래된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산업구조에서 단일 체계종합업체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됨으로써 국가 항공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지난 90년대 KFP 기술도입생산을 통해 항공기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KT-1 기본훈련기 및 초음속 항공기인 T-50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첨단 전투기급의 개발능력을 함양하는 등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왔다.

KT-1 기본훈련기의 경우 지난 2001년 2월 인도네시아에 7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항공기 개발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에어쇼에도 참가하여 시범비행을 함으로써 전세계 언론의 집중 화제가 된 것은 물론, 수출 전망을 밝게 하였고 선진항공국 진입을 앞당기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산업은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쟁력이나 산업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며 군 수요에 의존하여 산업육성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항공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에서 민·군수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F-X 차기 전투기, KMH 다목적헬기 등 후속 군수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시급한 당면과제라 하겠다.

F-X사업의 경우 약 40억달러 규모의 대형사업으로 절충교역 규모가 3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민항기 제작물량의 우선순위가 'D'에서 'A'로 조정되어 단독적인 대형사업으로 안정적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산업계에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제작물량을 확보하게 되는 한편, 물량확보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10억달러 상당의 제작물량은 군 의존도가 85%에 달하는 국내 항공산업의 민수비중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민수사업 특성상 절충교역 기간 이후에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하여 민항기 시장에서의 획기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보잉사는 전세계 민항기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로서 절충교역



으로 제시한 제작물량도 B737, 747 등 민간여객기의 주요 동체 구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다소, EPI 등에서 제안한 제작물량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절충교역 제작물량 이외에도 타 경쟁업체에서 제시하지 않은 민·군용기 정비/개조사업, 훈련기 수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을 위한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을 위한 장기발전계획(AIDP)'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F-X 사업을 계기로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잘 형성해 나간다면 국내 항공산업이 21세기 선진항공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이전 부분의 경우도 기본훈련기(KT-1) 사업과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를 독자개발할 수 있는 대부분의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F-X 절충교역으로 보잉사가 제안한 것과 같이, 비행제어, 항공무장, 항공전자, 무장제어 등의 분야에서 추가 핵심기술을 확보할 경우 2015년까지 실질적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KF-16 전투기 면허생산,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업 추진 등 최근 10여년간 괄목할 성장을 보여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기반을 선진수준으로 한단계 향상시키고 국내 현안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F-X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F-X사업 등 대형 군 항공기의 절충교역을 최대한 활용

세미나에서 이기상 교수(세종대 사회과학대학장)는 '국가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단계별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항공기 수출 및 민수비중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고 민수비중의 확대를 위해서는 선진업체와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나 경

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F-X사업 등 대형 군 항공기의 절충교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F-X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군·민수 균형발전을 이루어 2000년대 선진 항공산업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F-X사업 및 KMH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

또 조진수 교수(한양대 기계공학과)는 발표에서 "우리나라도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산업적인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국가 항공산업이 미국, 유럽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기 산업발전 계획에 체계적인 산업육성이 필수적이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기술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201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개발인력을 효율적으로 유지, 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 소요를 토대로 한 F-X사업 및 KMH 개발사업 등 군수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F-X사업의 추진으로 선진 핵심기술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이경태 교수(세종대 항공우주공학과)는 "항공기술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과거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항공기 설계, 제작기술을 통해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해낸 만큼 F-X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선진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한국형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항공기술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F-X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 우리의 미래와 국가안보를 우리 기술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발표하였다.